

氣(念力), 現代醫學의 새 代案

李東原
韓國 里仁代替醫學研究所長

1. 들어가면서

人體를 조직과 기관들의 有機的 結合으로 해명하는 構造的 개념에 의해서 해부학과 약물 투입을 중심한 현대의학은 생체 공학과 의 공학의 지원을 받아 構造的 형태를 可視化시키는 X-ray, MRI, CT, PET 등 尖端 診斷機器들이 개발-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가 이런 구조적 異常이 발현되기 이전에 조화상태의 부조화나 기능적 異常에 대한 診斷은 오늘날 서양 의학적 방법으로는 그 限界性을 보이고 있다. 성인병, 만성질환, 신경성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오히려 漢藥과 鍼術, 氣(念力) 등을 중심한 한의학적 治療效果에 대한 優秀性은 認定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적극적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의학적 치료법의 實體가 아직 명백하게 紛明되지 못한 동양의학의 特수성이 일차적 원인이 되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현대의학은 동양의학의 臨床效果를 여러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풍토가 다양하게 조성되면서 시공간 氣科學, 생체 氣科學, 潛在能力(超能力, 透視, 텔레파시, 念力 등) 분야에서 계속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동양의학에서 병의 原因은 우주를 관통하는 氣의 흐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과, 개인의 내면에 흐르는 氣의 通路가 막힌 데서 오는 '氣부족 現象'과 '탁한 氣의 停滯'로 생각해 왔다. 따라서 治病의 첫째 조건은 氣의 원활한 운용 및 유통과 부족한 氣를 채워주는 畢氣로 보았다. 침술, 지압 등은 氣를 원활하게 운용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며 특정한 氣가 縱縮된 식품을 藥으로 사용하거나 氣의 전수자로부터 직접 氣를 재충전 받는 외공으로 부족한 氣를 보충했던 것이다. 이런 氣修練이나 氣施術에 대한 놀라운 효과가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氣의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며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2. 동양의학의 성찰

필자의 생각은 醫學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生命을 尊貴하게 여기는 것이며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방법적 구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에의 접근방법에는 동서양의 구별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몸과 질병에는 동서양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병에 걸렸다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느냐는 차선의 문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學說 위주의 질병 치료가 아니라 患者 위주의 치료인 것이다.

동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동양의학은 수천 년 동안 체계화된 이론과 축적된 臨床實驗으로 자연과 인체 현상에 대한 고차원적인 解釋, 탁월한 養生, 보건위생에 대한 기능과 안정적인

臨床醫의 치료효과를 근거로 하여 서양의학 일변도인 세계 의학계에서 여전히 동양의학 자체가 가진 기능을 수행하면서 存續하고 있다. 이것은 동양의학이 자주적이면서도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인체 치료에 대한 근본에 置重하고 그 본성을 모색할 때 비로소 새 창조적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필자는 統一思想의 眞面目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이지만 統一思想의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동양의학에게 示唆하는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統一思想은 ‘마음과 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현상적으로 구별하면서 그 屬性은 ‘에너지적 마음’이요 ‘마음적 에너지’로서 性相-形狀의 授受關係라고 紹明하고 있다(통일사상, 2001, p.40). 그것은 오늘 필자의 발표주제인 ‘氣(念力)’와 직접 관련되는 명제라고 여긴다.

(1) 患者的 안락한 죽음과 그 家族의 안정

필자의 발표주제인 氣(念力)의 효과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檢證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지만 필자가 체득한 현실적 效果에 대한 사례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2004년 12월 28일자 韓國의 한 日刊紙에 실렸던 내용이 필자의 視線을 끌었다. 그것은 日本尊嚴死協會의 專務理事인 마쓰네 야스코(松根敦)의 인터뷰 內容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患者가 편하게 죽을 權利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家族들의 安定할 權利’이다. 患者가 便安한 終末을 맞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當然하게 여기지만, 그 家族들이 患者로 因해 겪는 苦痛에 대해서는 크게 注目하지 않는 듯하다. 이 점에서 日本尊嚴死協會는 매우 意味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日本尊嚴死協會의 專務理事가 強調한 바와 같이 그것은 患者가 마지막 길을 安樂하게 가는 것이 얼마나 重要하며, 한편 有家族들이 환자의 惡影響으로부터 保護받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經驗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10월 15일, 50代 後半인 한 男性이 필자를 찾아왔다. 그는 속이 쓰리고 消化不良으로 인하여 가끔 거북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필자는 患者에게 “3개월 동안 본 研究所의 氣(念力)를 받게 되면 깨끗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본 研究所를 나갔지만, 患者와 동행한 분이 “환자의 病名이 무엇이냐”고 電話로 물었다. 필자는 그것이 胃癌이라고 했다. 그 분은 “그러면 왜 患者가 있는 자리에서 그 事實을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그 胃癌은 비교적 가벼운 常態이므로 3개월 정도의 氣(念力) 療法에 의하여 쉽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실을 알려서 心的負擔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結局, 그는 필자의 勸告를 無視하고 病院에서 癌診斷을 받았고 病院의 要求대로 抗癌 治療를 받기 시작했다. 그 후 한동안 그 患者的 消息을 듣지 못했다. 이듬해 7월, 그 胃癌患者가 家族을 同伴하고 본 연구소로 왔다. 患者的 모습은 一般人이 보기에도 重患者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몹시 瘦瘠하였고, 옆에서 누군가가 副轉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衰弱해져 있었다.

그 환자의 婦人은 “저 양반은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못합니다. 넘기면 바로 올라와 버리거든요”라고 말했다. 필자는 그 婦人에게 “저 症狀이 나타난 지 오늘로 꼭 21 일째입니다”라고 꼭 집어서 말했다. 그러자 그 婦人은 “선생님, 제발 제 男便을 살려 주십시오”하면서 필자에게 매달렸다. 필자는 그 患者를 밖에 나가있게 하고 그 婦人에게 “앞으로 저 분은 3 – 4 일 정도밖에 살지 못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부인은 “앞으로 선생님의 氣(念力)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물었다. 필자는 “그렇게 되면, 氣를 받는 동안 鎮痛劑를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痛症이 緩和될 것이지만, 그렇게 해도 앞으로 30 – 40 일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婦人은 “그것이 좋으니 氣를 받겠다.”고 했다. 저의 豫測대로 그 患者는 마지막 날은 40 여 일 동안 苦痛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처럼 하루 세끼 食事を 하면서 末期癌 患者답지 않게 便安한 상태로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다.

葬禮가 끝난 후 그 婦人이 찾아와 感謝하다는 말을 했다. 그 婦人은 그 이후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 그 婦人이 진실로 더 고맙게 여겼던 것은 患者 當事者가 苦痛을 거의 느끼지 않고 일상을 마감하였다는 것과, 그 家族들을 그 患者的 惡影響으로부터 保護해 주었다는 것이다. 一般的인 경우, 末期 癌患者는 極甚한 苦痛을 겪게 되므로 家族 또한 어쩔 수 없이 그 苦痛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 이른바 ‘患者家族의 苦痛’이 극심한 것이다. 만일 그 家族이 患者 이외에 5 명의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서 그 患者와 體質이나 性格이 비슷한 가족은 患者가 주는 스트레스에 가장 敏感하게 影響을 받는다. 그 潛在的 影響力은 그의 臟器에 衝擊을 주어 故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 현상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게 되는데 언젠가는 죽은 患者와 같은 症狀을 겪게 될 可能性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앞서 言及한 患者的 경우, 짧은 期間이었지만 필자의 氣(念力)에 의해서 苦痛을 덜게 되었으므로 다른 家族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各自의 生活에 充實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필자의 氣(念力)가 日本協會가 주로 追求하고 있는 바와 같이 患者를 便하게 할 뿐만 아니라, 患者 家族들을 保護하는 役割을 充實히 修行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事實이 그 婦人이 항상 필자에게 感謝한 마음을 表하게 하였던 것이다.

(2) 氣(念力)의 실제와 실질적 效能

1) 氣(念力)의 실제

그러면 이 氣(念力)는 어떠한 것이며 疾病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앞서 필자가 어떻게 疾病問題에 關心을 가지면서 그것을 解決하려고 努力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簡單히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來歷이 있는 漢醫師 집안에서 出生하여 成長했다. 필자의 祖父와 父親께서는 한국 慶南 蔚山地域에서 代代로 유명한 漢醫師로 지내셨다. 특히, 鍼術에 關해서 一家見이 있음을 널리 認定받고 있었다. 한편, 叔父와 長兄 모두 漢醫師였으며, 四寸 동생은 美國에서 漢醫大學 教授로 봉직하다가 몇 년 전 韓國으로 귀국하여 지금 漢醫師로 開業하고 있다.

이런 家門의 來歷 德分에 필자는 어려서부터 痘과 治療에 관한 直-間接的 經驗을 할 수 있는機會가 많이 있었다. 어떤 때는 患者가 죽어 나가는 것도 보았다. 필자가 初等學校 3 학년이었을 때, 父親께서 漢醫學 공부에 더욱 精進하기 위하여 절로 들어가신 적이 있었다. 찾아오는 患者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 初等學生인 필자가 針 施術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環境이 필자를 仁術에 從事할 수 있도록 하는 運命的 길잡이였는지도 모른다.

그 때부터 痘과 그 治療에 관한 남다른 苦悶이 많았다. 이런 苦悶은 어린 소년을 늘 깊은 想念에 잠기게 하였으며 밤잠을 설치는 일도 많았으며, 學校 受業時間에도 필자 자신만의 精神世界에 没頭하기에 다른 생각을 한다고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필자가 30 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事實은 人體의 '氣의 흐름'이 重要하다는 것이었다. 사람에게 5 臟 6 脏가 있어서 그것이 全 人體를 管理하고, 血液과 氣가 全身으로 흐르게 하는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다는 事實을 깨닫게 되었다. 人體의 5 臟 6 脏는 機械의 中心에 該當하며, 河川의 賽水池에 該當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認識하게 되었다. 四肢는 물론, 머리카락, 손톱과 발톱에 이르기까지 모든 器官이 5 臟 6 脏와 連結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四肢에 問題(病)가 생겼을 경우, 四肢 自體를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交通事故나 絶斷事故 같은 외과적인 應急治療를 제외한 어떤 疾病이라도 그것의 原因을 提供한 5 臟 6 脏를 度外視하고, 그 患部(이를테면 손, 발, 다리 등)에만 注目하는 것은 無意味하다는 것이 30 세가 넘었을 때 필자의 結論이었고, 이것은 그 이후 필자가 다양한 醫療 經驗을 통하여 確證된 사실이다.

우선 氣(念力)를 理解하기 위하여 몇 가지 概念을 소개하고자 한다. 陰陽의 概念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漢醫學에서 陰陽, 五行 등의 用語들이 非現代의이며, 漢醫들의 說明이 現代人이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도록 하려는 努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漢醫學 自體가 何等의 學術的 價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說明 方法이 잘못 되었다든가, 一般 사람들이 그것을 理解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原理와 事實까지 否認될 수 없을 것이다.

1) 陰陽說은 支那哲學의 根幹이 되어 있으며 宇宙自然의 理法을 음양설로 說明하고 있다. 陰陽의 量的配合의 差異에 의하여 5 行에서 物質이 化生하고, 陰陽 兩氣의 消長에 의하여 四時가 還易한다. 太極이 生兩儀(天地陰陽)하고, 兩儀가 生四象하며, 四象이 生八卦하고, 8 卦가 64 卦로 化한다. 陰陽 配合量의 差別相은 無限대로 퍼져가서, 여기에 宇宙萬物이 生成하는 것이다. 5 行說은 多元論이고, 陰陽說은 二元論이고, 太極說은 一元論이다. 多元論은 二元論에 統制되고, 二元論은 一元論에 歸一되는데 여기에 東洋學問의 眞面目이 있는 것이다.

陰陽說을 哲學的으로 論評 및 解說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陽은 動을 意味하고, 陰은 靜을 意味하다. 陽은 積極的이고, 陰은 消極的이다. 活動을

旺盛하게 하면 많은 热量을 消耗하여 體溫이 增進되고, 活動을 적게 하면 體溫이 減下된다. 그래서 热은 陽이고, 陰은 寒이다.

陰陽이 잘 調和되어야만 우리는 常軌의 生理狀態의 健康體를 維持할 수 있으며 陰陽이 不調和하여 生理的 調節의 均衡이 깨지면 거기서 病의 現像이 생기는 것이므로 常軌의 生理狀態를 벗어난 것은 모두 病이 되는 것이다. 過한 것도 病이며, 不足한 것도 病이다. 體溫이 39 度나 40 度로 올라간 것도 病이며, 34 度나 35 度로 내려간 것도 病이다. 脈搏이 90 회나 100 회로 많아진 것도 병이며, 50 회나 40 회로 적어진 것도 病이다. 前者は 陽의 活動이 强하고 後者は 陰이 强하고 陽이 弱한 때의 現像이다. 여기서 陰陽의 調節機能의 均衡이 깨어졌을 때 이것이 곧 病이 되는 것이며, 인간이 生活하는 데 支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64卦는 곧 8卦이며, 8卦는 4象이다. 4象은 곧 陰陽이며, 陰陽은 太極이며, 이것이 바로 氣(念力)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氣(念力)는 바로 太極이 되는 것이다.

이 氣가 5臟 6府를 관리하는 바로 힘이다. 이 힘은 木, 火, 土, 金, 水가 있으며 이것들이 5種類의 힘이 되어서 5臟 6腑를 調節하고 있는 것이다. 이 5種類의 힘이 5臟에서 生成하여 身體의 全身을 管理하므로 사람은 生活에서 過勞, 營養, 環境 등으로 因해 氣(念力)의 損傷을 입는데 이것이 곧 病이다. 그러므로 氣를 잘 維持하였을 때 自身은 물론 他人도 다스릴 수 있다. 氣 또한 탁한 氣와 맑은 氣가 있으므로 맑은 氣로 他人을 為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며, 탁한 氣로 他人을 為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필자의 整頓된 氣(念力)로 他人의 흐트러진 氣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他人의 病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것을 필자의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仔細하게 說明할 수 있지만, 時間的 制約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實例만을 예시하고자 한다.

2) 氣(念力)의 실질적 효능

4년 전 28세인 한 여성이 白血病으로 본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그 여성은 약 2년여에 걸쳐서 필자에게 氣(念力)를 받음으로써 完治하였다. 얼마 전 다시 본 연구소로 電話가 왔다. 그 환자는 '現在는 嫗娠中인데, 오른쪽 大腿骨 關節이 奪骨되어 病院을 찾아 교정을 받았으나, 다시 奪骨이 계속되므로 產婦人科를 다시 갔다'고 했다. 擔當醫師는 '經過를 좀 더 지켜보자'고 하기로 본연구소로 電話を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몇 번 더 電話を 하라고 했는데(전화를 통하여 氣를 보내었다), 마침내, 關節에 힘이 생겨 더 이상 奪骨이 되지 않았다. 그 여성의 남편은 內科醫師이다. 그 男便은 저에게 '그 症狀의 原因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필자는 '肝이 虛하기 때문에, 肝이 主管하는 系統이 弱해져서 大腿骨이 빠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여성은 필자에게 몇 번 더 氣(念力)를 받았는데, 이제는 大腿骨이 전혀 빠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필자는 完全한 회復을 위하여 당분간 氣를 더 받으라고 했다.

다음은 60 세 女性으로 甲狀腺癌에 걸린 경우이다. 필자는 아래에 卵巢가 있는 곳을 指的하면서 卵巢管異狀이 그 原因이라고 診斷했다. 그 후 卵巢가 있는 쪽으로 氣를 보냈다. 약 3 개월 정도의 氣를 한 후, 다시 病院에 가서 確認한 結果 목의 右側 앞부분에 있던 1.2cm 惡性腫瘍과 목의 左側 앞부분에 있던 0.2cm 良性腫瘍에서 變化가 있었다. 왼쪽의 惡性腫瘍은 良性腫瘍으로 변화되었다. 반면, 比重을 두지 않았던(氣를 집중적으로 보내지 않았던) 0.2cm 良性腫瘍은 惡性으로 變化되어 있었기에, 現在 氣를 계속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留學을 하고 있는 男子 高等學生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學生의 부친이 필자에게 와서 '아들의 肝이 너무 나빠서 肝 移植을 받아야 하는데, 病院에서는 體力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肝 移植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 體力を 회복할 수 없느냐'고 하였다. 그 學生의 경우, 肝이 구리 成分을 處理하지 못하는 데서 基因한 症狀으로서 肝의 狀態가 너무 나빠서 이 狀態로는 病院에서 藥物處方, 肝移植 등의 治療를 하기가 어려운 狀態였다. 필자는 '脾臟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診斷하면서, '肝에 集中的인 氣(念力)를 보내면 肝의 기능이 당장 회복할 수 있지만, 곧 再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脾臟을 回復하고 肝을 고쳐 놓게 되면 再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부친은 美國으로 돌아갔으며, 學生이 韓國으로 올 처지가 못 되므로 1 주일 동안 '電話를 통해' 그 학생에게 氣를 계속 보냈다. 1 주일 후, 그 부친으로부터 (電話로) 擔當醫師에 의하면 '肝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난 후 필자가 東南亞를 순방할 일이 생겼는데, 韓國을 떠나면서 필자는 電話로 맹을 申請했다(이미 필자에게 電話로 氣를 받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화로 맹은 매우 重要하였음). 그런데 電話會社의 事情으로 36 시간 동안 電話を 받는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36 시간 후 그 부친과 通話가 이루어졌는데, 그 學生의 脾臟이 13cm 나 부었다는 것이다. 그 父母님은 매우 切迫한 心情으로 필자에게 電話を 했다. 그 날은 5 분이 멀다 하고 電話を 했는데, 그러한 切迫한 狀況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病院에서 確認한 結果, 氣(念力)를 한지 2 일 만에 그 13cm 부은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氣를 위한 電話는 10 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2 개월 전 檢診結果는 앞으로 2 - 3 개월에 한 번씩 와서 檢診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氣(念力)를 받는 동안 病院檢診 외에 그 病院에서 하는 다른 어떤 治療도 禁止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氣(念力)의 效能을 立證할 無數한 事例가 있지만 이것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3. 동양의학의 실제

(1) 동양의학의 형성과정

이제, 본 주제와 관련하여 東洋醫學의 實際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인류가 기원하면서부터 발생한 醫學은 인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천해온 활동이다. 몇 천 년 동안 의학은 언제나 인류의 가장 숭고한 이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동양의학이 역사적으로 유구한 의학으로 발전한 것은 동양의학이 선택한 독특한 연구방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학에서는 養生을 통해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養生은 인체가 가진 주체적으로 개방된 자체 조직 시스템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인체의 조직 능력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로운 것은 利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養生에 도움이 되도록 독물을 치료약물로 변화시켜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醫學의 기본적인 機能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학은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서 건강과 질병의 변화를 파악하며 의학연구에서 새로운 학설을 발생시킨다.

춘추전국시대의 음양오행학설과 精氣學說들은 고대 중국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고대 의학자들은 이러한 학설을 이용하여 산재해 왔던 의료경험들을 수집하였으며, 당시의 자연과학 成果와 결합시키고 완성시켰으며 感性的 인식에서 理性的 인식의 단계로 발전시키면서 비교적 완만한 이론체계를 형성시켰다. 자연과학의 영향은 동양의학의 견실한 기초가 되었다. 고대 의학가가 주장한 “6 기(風. 寒. 署. 濕. 燥. 火)가 병을 일으킨다.”는 학설은 그 당시의 의학자들이 자연계의 이상한 기후변화가 인체의 건강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

(2) 黃帝內經

경전적인 의학문헌인 黃帝內經은 靈樞와 素問“ 두 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陰陽五行說을 이론방법으로, 整體觀念을 指導思想으로 하여, 인체 내부의 활동 규율과 인체의 외부, 자연환경과의 통일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경락 및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의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의학 이론을 설명하는 동시에 당시 철학 영역에 존재하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 즉, 陰陽五行, 精氣, 天, 人, 形神 관계 등에 대하여도 토론과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黃帝內經은 의학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과학과 철학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동양의학의 발전을 推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 기초의 源泉이 되었다. 즉, 形態方面에서, 인체의 골격, 혈액 및 내장에 대한 묘방, 생리방면에서 整體的인 연결들은 지금도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精-氣-神, 陰陽

동양의학은 고대 唯物論과 辨證法 사상의 지도 아래 인류 생명의 기원, 형체와 정신의 관계 및 질병의 원인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은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증명하였던 것이다. 세계는 물질로 형성된 것이며, 만물의 생성은 天地陰陽의 氣가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즉, 인체는 부모의 精氣가 결합되고, 母를 기본으로 父의 보호를 받는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胚胎로부터 분화 발전하여 형체와 정신이 具備된 인체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동양의학에서는 生命은 物質이고 인체의 生命形相은 물질의 運動이며, 인체의 장부 조직의 기능 활동이 종합하여 형성됨을 인정하였다.

形과 神의 관계는 生物과 情神의 관계이다. 동양의학은 고대 유물주의의 精華를 흡수하고 임상 실험과 결합하여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물질인 精氣는 생명의 근본이고

第一靜的인 것이며, 정신은 물질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第二靜的인 것이다. 즉, 물질인 형태가 있어야만 생명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정신활동 및 구체적인 생리기능이 있게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사람의 형체는 반드시 자연계의 일정한 물질을 섭취하여야 하고, 이것이 氣血로 변화되어야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또 반드시 정신의 기능 활동을 정상으로 발휘되는 것에 의거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形은 神이 들어있는 宅이고 神은 形의 주관이므로 상호 依存하며 나눌 수 없는 관계로서 이것이 ‘神과 形은 결부 된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즉, 형태가 존재하면, 정신이 존재하고 형태가 소실되면 정신도 소멸되며 정신이 없으면 형태는 살아나갈 수 없고, 형태가 없으면 정신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므로 양자의 관계는 상호 의지할 곳이 없어지므로 양자의 관계는 상호 의존하고 돋는 관계로서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양의학 이론에서 形과 神이 統一되는 唯物觀은 養生하고 防病하며 漣年益壽 및 診斷과 治療 등 방면의 중요 기본이 되고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음양은 한 쌍의 對立과 통일의 矛盾이고 양자 사이 성쇠변화는 자연계 운동발전의 근본 규율이며 고도로 발전하고 陰陽인 두 개의 氣가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生命의 本質은 인체 내부의 陰陽의 矛盾 또는 對立, 統一 및 인체와 주위 환경과의 統一이다. 사람의 생명 활동 과정은 곧 인체의 陰陽의 對立, 쌍방이 끊임없는 矛盾運動 속에 統一를 이루는 과정이다.

동양의학은 사람이 자연계의 한 구성부분이고 자연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인체 각개 조직기관은 모두 한 개의 통일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생리상, 병리상에서 모두 상호 연결되고 상호 영향되는 것으로서 整體觀念인 部部登觀點이 확립되는 것이다.

그 외에 동양의학에서는 운동은 물질의 성격이며 모든 자연계와 완전한 일체를 포함하는 모든 물체로 모두 영원히 운동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운동 형상이 昇, 降, 出, 入인 것이며 인체의 생명과정은 “生, 長, 莊, 老, 死”의 몇 단계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矛盾觀點, 整體觀點, 運動觀點은 동양의학, 변증법 사상의 3대 표현이며 이 3대 관점은 생리, 병리, 진단 및 치료 등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1) 생리방면

생리방면에서 변증관은 중요하며 인체가 臟腑를 중심으로 하고 경락을 연속관계로 하며 내외 환경이 상대적으로 통일된 整體觀, 장부 사이에서 상호 의존하고 제약하는 대립 통일관, 기혈진액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臟腑의 생리기능 정신활동과 생리활동 사이에 변증통일관 등으로 표현된다.

2) 병리방면

邪氣가 인체를 侵襲할 때 인체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병리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內因을 중시하는 동시에 外因을 부정하지 않는 病因學觀點, “精氣가 체내에 發顯하면 邪氣가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내인을 중시하는 病理學觀點, 오장이 서로 연결되므로 병증은 轉變되고 “순서대로 이동한다.”는 病機學觀點 등은 변증법 사상의 동양의학 병리방면에 구체적인 표현이다.

3) 진단방면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은 인체 각개 脏腑 사이에 내부 환경과 인체의 외계 환경 사이에 협조, 균형이 파괴됨으로써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질병을 진단할 때 질병을 고립적으로 보지 말고 질병의 형성, 발전 변화와 인체의 전신 상태 및 생활하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연결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整體로 考察해야 한다. 즉, 천문, 지리, 사회, 四診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現象을 통하여 本質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4) 예방과 치료방면

치료에서 정기를 둡고 邪氣를 제거하며, 陰陽을 조절하는 원칙은 대립 통일 관념의 구체적인 응용이다.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적당하게 치료하여야 한다는 원칙, 전체와 국부를 동시에 중시하는 것이다. 외적 치료와 내적 치료를 결합하는 원칙 등은 모두 整體觀念을 이용한 적극적인 표현이다.

동양의학은 整體觀念과 辨病論治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整體觀念에서는 인체의 각개 부분은 조직상에서 분리시킬 수 없고, 기능상에서 상호 협조하고 상호 이용하며, 병리상에서 상호 영향을 끼치고 상호 제약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整體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계로 상호 연결되어 밀접히 관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체 자체의 통일성과 자연계와의 통일성은 整體觀念의 기본 내용이며 동양의학에서 질병을 인식하고 치료 방법을 확립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辨病論治는 辨病과 論治 두 부분을 포함한다. 辨病이란 四診을 통해 얻어진 재료, 症狀과 體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질병의 원인, 성질과 부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證候의 유형을 확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論治는 변증의 결과에 근거하고 整體觀念의 지도 아래 대응된 치료 법칙을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辨病은 치료를 결정하는 전제이고 근거이며 論治는 질병을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4. 마치면서

동양의학의 특수한 연구방법의 지속적인 維持와 開發에 따라 점차 한 걸음씩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발표주제, 특히 ‘동양의학의 실제’는 統一思想의 見解, 특히 世界觀, 物質觀 등의 견해와 달리하는 부분을 적지 않게 발견하였다. 統一思想의 기본적 골격은 필자의 견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런 契機를 맞이하여 앞으로 統一思想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는 韓國은 물론, 日本에서도 里仁代替醫學 즉. 氣(念力)의 驚異로운 醫學的 成果가 共有되기를 期待하고 있다. 日本에 한 달에 한두 번, 때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往來하고 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곳 日本에서도 필자의 뜻에 同參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은 필자로서는 매우 鼓舞的이다. 現在에서 바라볼 때 다소 먼 目標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필자는 韓國과 日本에서 20 – 30 만 명의 代替醫學會員을 確保하여 南北韓 統一에 寄與할 수 있는 기획을 구상하고 있다. 教授님 여러분의 많은 協助를 付託드린다.